

파디엠

PADIEM

주식회사 파디엠 COMPANY

대표 강혜림 | 설립연도 2016년(2018년 법인 설립) | 광주광역시 동구 서남로 14, 4층 404호

062-233-1010, www.padiem.net

- 2017. 6. 특허청 주최 2017 대한민국세계여성발명대회 대상
- 2018. 7. 안전경보 장치 및 이를 포함하는 안전경보 시스템 특허 등록
- 2018. 11. 올해의 청년기업인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표창
- 2019. 8. 광주광역시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우수상
- 2019. 11. 중국 산둥성 인민정부 주관 제2회 한중혁신대회 수상
- 2020. 5. 대한상공회의소 규제샌드박스 신속확인 우수기업 선정
- 2020. 7. 호신 서비스 제공 방법 및 장치 특허 등록

오픈스퀘어-D 광주

파디엠은 여성, 노인, 아동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범죄예방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기업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AI 시스템 구축을 통해 안심 귀갓길을 위한 '아퓨'라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국제발명대회 등에서 수상하고 파나마 기업과 5억 원 규모의 판매 MOU 체결, 중국 블랙박스 1위 기업과 40억 원 수출 계약 성과를 올리는 등 제품 경쟁력을 국내외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아퓨 IPU

스마트시티 기반의 AI 범죄예방 시스템

여성 안심 귀갓길을 위한 호신 디바이스 아퓨(IPU)

- 귀가 시 후방에 다가오는 위험인물을 모션 센서와 보이스 센서로 미리 감지
- 범죄 예방을 위한 경고 기능 탑재, 실시간 영상 촬영 및 전송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AI 제품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안전리뷰 플랫폼

- 행안부의 공공데이터를 활용, 안전한 곳과 위험한 곳을 표기한 안전지도
- 여성이 직접 안전 리뷰를 올릴 수 있고, 안전 내비게이션 기능도 제공

개인별 여성 지원정책 플랫폼

- 여성의 나이, 직업, 상황 등에 맞는 지원정책 추천 및 이용 안내 서비스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여성 안전제품 쇼핑몰

- 여성 개인별 위험도를 측정, 선호하는 호신기기를 선택하면 맞춤 제품을 추천

* 아퓨(IPU) : 'I'll Protect U, 내가 널 지켜줄게'의 의미

파디엠(PA.D.M)은 ‘Protect(보호하고), Avoid(방지하고), Defend(방어한다), from criminal Man(범죄자로부터)’의 뜻을 지닌 단어들의 첫 철자를 따서 만든 이름입니다. 스마트시티 기반의 AI 범죄예방 시스템을 개발해 세상의 모든 범죄로부터 여성, 아동 및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인 기업, 파디엠. 여성이 안전해지는 사회를 꿈꾸며, 여러 난관 속에서도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도전을 이어가고 있는 강혜림 대표의 이야기를 정리했습니다.



주식회사 파디엠
강혜림 대표

“ 여성이 안전한 세상을 위해 범죄예방 시스템을 만드는 게 목표 ”

여성의 안전을 지키는, 여성을 위한 사업

15년간 학원을 운영하면서 여학생들과 그 부모들이 얼마나 안전을 염려하는지 잘 알게 됐습니다.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안전을 지키고 싶어 하는데요. 하원 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요청을 무수히 받았습니다. 하지만 가로등이나 CCTV 설치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고, 대부분의 호신 제품도 1차원적인 형태라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직접 여성을 보호할 제품을 만들고 여성을 위한 사업을 해봐야겠다고 생각해 범죄예방 시스템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좀 더 효과적인 안전지도 만들기

파디엠에서는 여성안전 시스템 구축을 위해 행안부의 생활안전지도를 활용해 좀 더 효과적인 안전지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생활안전지도에서 치안안전만을 대상으로 한 안전지도를 만들고 있는데, 현재 안전지도는 너무 내용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 밤길 안전을 보려고 들어가면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한 과정이 매우 복잡하죠. 전체적으로 사용자 친화적인 UI/UX가 아니어서 여성을 위한 안전지도 UI/UX를 개발 중입니다. 또한 생활안전지도의 오픈 API가 있지만,

정보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직접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개발하고 있어요. 안전하지 않은 장소에 대한 평가 시스템을 마련해 코멘트를 달아 다른 사용자와 공유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안전 기능은 안심귀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AI 안면인식 기록도 무료로 제공하는데요. 밤길을 혼자 걷게 되었을 때를 대비해 여성용 도보 내비게이션을 개발 후 탑재할 계획입니다. 길찾기, 가는 시간 처리 등의 기능을 더해 여성들이 밤길을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목적지의 환경을 전혀 모를 때를 대비해 안전지도에 여러 편의시설 정보도 함께 제공할 계획입니다.

성범죄자 정보 공개와 공유에 관한 규제가 풀리길

아플을 개발하고 사업화하면서 힘든 점 중 하나는, 후방에 다가오는 위험인물을 인식할 때 고려해야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규제였습니다. 행안부로부터는 개인이 자신의 사적인 목적으로 호신용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경우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아 규율 대상이 아니므로 다행히 제품 출시에는 문제가 없다는 답변(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범죄자 특히 아동 성범죄자의 경우 정보를 제품에 담아 아동 및 보호자에게 미리 알려주는 기능을 여가부에 요청했을 때는 사용하지 못한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개인정보보호법상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는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정보 주체로부터의 사전 동의, 혹은 법률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등에 한해 수집·이용·제공하는 행위가 가능하도록 엄격히 제한(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6조)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요청 사항인 ‘성범죄자 알림e 데이터’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공익 목적일 경우 범죄자의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공유되면 좋겠어요. 특히 아동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안이 개정되고 규제가 풀리길 바라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위기를 딛고 성과를 이어갈 것

파디엠은 2019년 중국 산둥성 인민정부가 주관한 한중혁신대회에서 수상하면서 위해시에 중국 법인 ‘위해 은린밍런 기술과학 유한공사’를 설립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로 인해 중국 선전 기업과 40억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맺는 성과를 올렸고요. 2020년에는 대한상공회의소 규제샌드박스에 선정돼 행안부, 과기부, 여가부 등 정부 부처로부터 제품의 국내 출시에 아무런 규제가 없다는 확인을 받아 출시를 준비해왔습니다. 그런데 중국 기업과 계약을 맺은 이후 코로나19로 중국 생산 공장이 폐쇄됨에 따라 수출이 잠정 중단된 상황이에요. 작년 상반기에는 이로 인해 회사로서도 큰 타격이 있었고, 1년간 준비한 중국 진출이 무산될 수 있다는 생각에 방향도 많이 했죠. 그러나 이 또한 기회일 수 있으니 다음 단계로 생각했던 AI 플랫폼 개발을 서둘러 시작했습니다. 기존 아플 제품에 안면인식 기능과 동작인식 기능을 추가해 야간에 도 사람과 사물을 구별하고 성별, 나이 등을 인식하게 해 불만 요소를 감소시키는 거예요. 또한 사용자가 원하면 촬영본을 분석해 범죄 위험인물을 감별하고 성범죄자 데이터베이스와 연동, 성범죄자를 식별할 수 있게 개발 중입니다.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여성, 아동,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기여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